

2023년 6월 8일

디스플레이 / 가전 Analyst 김동원
02-6114-2913 jeff.kim@kbfg.com
연구원 박주영
02-6114-2920 juyoung.park@kbfg.com
연구원 유우형
02-6114-2940 Woohyung.yoo@kbfg.com
연구원 이경아
02-6114-2111 kyunga.lee@kbfg.com

디스플레이

TV 수요 회복세 진입



더 많은 리포트 보기

2분기 TV 출하량,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 6월 7일 시장조사 기관인 트렌드포스 (Trendforce)에 따르면 2분기 글로벌 TV 출하량은 전분기대비 +9% 증가한 4,726만대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할 전망이다. 이는 글로벌 TV 세트업체들의 유동 재고 건전화가 5개월 이상 지속되는 가운데 신제품 중심의 수요회복 추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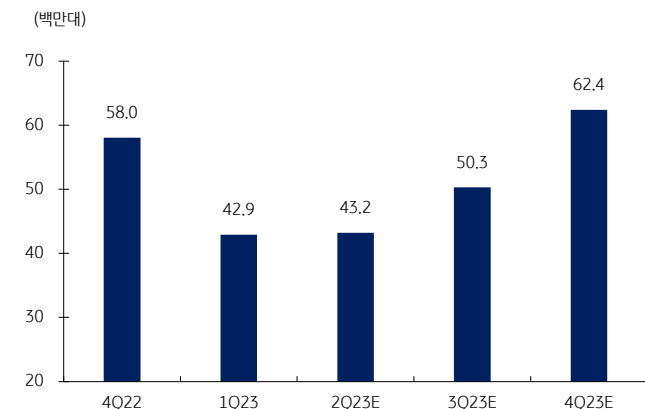
LCD 패널가격, 4분기까지 상승세 지속

— 글로벌 대형 LCD 패널업체들의 생산라인 가동률은 지난해 하반기를 바닥으로 회복 추세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글로벌 TV 세트업체들의 LCD TV 패널 재고는 정상 수준을 30% 하회하고 있어 하반기 성수기를 앞두고 대형 LCD 패널구매가 필요할 전망이다. 따라서 LCD TV 패널가격은 세트업체들의 재고 축적 수요 영향으로 4분기까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Top picks: 삼성전자, LG전자, LG디스플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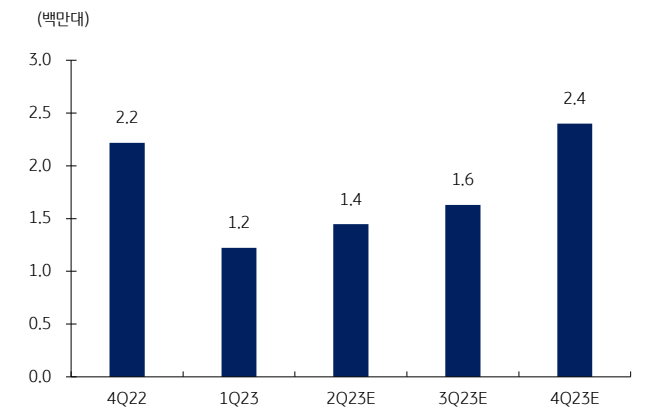
— 글로벌 대형 LCD 패널 생산라인 가동률은 지난해 하반기 평균 가동률 68% (3Q22: 67.5%, 4Q22: 68.9%)를 바닥으로 올해 1분기 69%, 2분기 77%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하반기에는 가동률 80% 이상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중국 LCD 패널업체들이 탄력적인 가동률 조정을 통한 공급축소 전략을 지속하는 가운데 글로벌 TV 세트업체들의 TV 패널 재고가 정상을 하회하고 있고 하반기 신제품 TV 출시를 앞두고 대형 LCD 패널 재고축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 하반기부터 TV 세트업체와 LCD 패널업체들은 LCD 패널가격 상승과 유동재고 건전화로 점진적 수익성 개선 추세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선호주로 삼성전자, LG전자, LG디스플레이를 제시한다.

그림 1. 글로벌 LCD TV 출하 동향



자료: 옴디아, KB증권, 추정

그림 2. 글로벌 OLED TV 출하 전망



자료: 옴디아, KB증권 추정



투자자 고지 사항

KB증권은 자료 공표일 현재 [삼성전자]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의 발행자 및 유동성공급자입니다.

KB증권은 자료 공표일 현재 [LG전자]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의 발행자 및 유동성공급자입니다.

KB증권은 동 조사분석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와 그 배우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 작성자는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 보고서는 고객들에게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계약의 청약 또는 청약의 유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는 KB증권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와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일 시점의 전문적인 판단을 반영한 의견이나 KB증권이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투자는 고객의 판단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 보고서는 여하한 형태로도 고객의 투자판단 및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의 저작권은 KB증권에 있으므로 KB증권의 동의 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학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학술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KB증권에 사전 통보하여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